

故 이진호 前 포천군수 송덕비 건립



故 이진호 전 포천군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송덕비가 구립 26일 군내면 명산리에 세워졌다.

청현 이진호선생 송덕비건립 추 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청현(淸軒) 진위원회(위원장 이종호 포천시의 회 의원)는 구립 26일 군내면 명산

군내면 명산리에

이진호 전 포천군수의 업적과 청 령했던 뜻을 계승하기 위해 건립된 송덕비 제막식에는 청현 선생의 가족들을 비롯해 시 관계자 및 사회 단체장, 시민 등 13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 송덕비는 구립 9월 청현선생 을 추모하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10월초 장소선정, 11월부터 건립하 기 시작해 구립 26일 완공됐다. 송덕비 건립을 위해 포천시에서 500만원과 고성이씨(西城李氏) 중 친회에서 1천만원, 청현선생을 추 모하는 사람들에서 2천3천원 등 총 3천613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앞 으로 시유적지로 관리되게 된다. 또 송덕비의 비문은 최중규 전

포천향교 전교가 지었으며, 포천에 술인동우회 이병찬 회장이 글을 써 주었다.

한편 구립해 12월 18일 고인이 된 이진호 전 군수는 일제시대에 포천우체국 직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포천, 의정부경찰서 서 장 직무대행, 포천농협조합장, 포천 산립조합장, 포천농지개발조합장 등 기관장을 역임했다.

또한 초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 쳐 민선 1, 2기 포천군수를 7년간 역임한 고인은, 60여 년 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감직하고 청렴한 공직 자로 후배 공직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

송덕비 제막식에서 이종호 포천 시의회 의원은"생전에 참배리로서 살아간 청현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송덕비를 건립했다"며 "앞으 로 청현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선 양사업이 계속 뻗어나가길 바란다" 고 밝혔다.

지협배기자 94spice@hanmail.net

자/유/기/고

乙酉年 닭의 전설



최중규

포천시민대 총제 작추진위원장

닭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야 생하고 있는 들 닭이 사육 개량된 것이면 서기 전 6~7세기경부터 사 육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닭은 이미 신라의 시 조 설화에서도 나오듯이?삼국유사? 에서 김알지(金閼智)의 탄생담에 의 하면 신라왕이 어느 날 밤에 금성 (金城) 서쪽 숲 속에서 닭에 울음소 리가 나는 것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니 금빛의 계가 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그 계를 가져와 열어 보니 그 안에 남자아이기가 들어 있었 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경주금성(金 城)에 되었다고 하였다. 그 뒤 그 숲의 이 름을 계림(鷄林)이라고 하였으며 신 라의 국호로 쓰기도 하였다.

이러한 설화에서 닭이 이미 사람과 친밀한 관계 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닭은 그 종류가 매우 많아서 산지에 따라 크기 와 형태 색깔이 차이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장미계 (長尾鷄)는 꼬리가 3~4척에 이르고 여러 닭 중에 서도 맛이 좋고 기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는 장미계 등 토종닭은 그 품종이 급격히 줄어들 어 보기가 어렵다. 그 대신 알과 고기를 얻기 위 하여 여러 가지 외국 품종이 사육되고 있다. 닭고 기는 흰색 내지 회색이며 육질이 섬세하고 연하 여 소나 돼지에 비하여 지방이 적고 맛이 담백하 여 소화흡수가 잘 된다. 따라서 유아나 위장이 약 한 사람에게 좋은 단백질원이 되고 있다.

또한 '동요보감'에서는 붉은 수탉 (丹雄鷄), 흰 수탉 (白雄鷄), 검은 수탉(烏雄鷄), 오골계(烏骨 鷄)로 나누어 각각 효험을 서술하고 있다.

즉 붉은 수탉은 성질이 미온하고 맛이 달며 독 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여자의 대하(帶下)등을 다스리며 물이 허한 것을 보하고 독을 없애며 상 서롭지 못한 것을 물리치며 목을 매어 혼절한 것 과 발레가 귀에 들어가 생긴 병, 연주창등을 다스 린다고 하였다.

흰 닭의 발톱과 뇌는 난산을 치료하고 검은 닭 의 쓸개는 눈이 어두운 것과 피부병을 치료하여

염통은 오사(五邪)를 다스리고 벼 의 피는 것을 나게 한다고 하였 다. 그리고 검은 암탉의 날개는 어린이가 밤에 우는 것을 고치 고 날개 죽이는 허혈을 막고 대머 리와 부스럼을 고치며 풍은 증종 으로 말을 못하는 증상을 치유 한 다고 하였다.

닭은 이처럼 민간처방에서도 중 요한 구실을 하고 있어서 우리의 전통 문화속에 커다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또한 '동국세시기' 에 보면 정월 원일(正月 元日)에 항강에서는 벽 위에 닭과 호랑이 에 그림을 부쳐 액이 물러나기를 믿는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새벽 에 우는 닭의 울음이 열 번이 넘

으면 풍년이 든다고 하였으며 정월 들어 첫 유일 을 '닭의 날'이라고 한다. 이날은 부녀자의 바느질 을 금했다. 만약 바느질을 하다가 길쌈을 하면 손 이 닭의 발처럼 흉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로 닭의 울음소리는 귀 신을 쫓는 벽사의 기능을 가진다고 한다. 그래서 닭이 제때에 울지 않으면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 다. 닭이 초저녁에 울면 재수가 없다고 하고 밤중 에 울면 불길하다고 하며 수탉이 해진 다음에 울 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믿는다.

호남지역에서는 머느리가 닭의 머리를 먹으면 시어머니 눈 밖에 난다고 하였으며 경기지방에서 는 여자가 닭의 목이나 발을 먹으면 그릇을 깨다 고 하였다. 임신 중인 여자는 닭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닭고기를 먹으면 태아의 피부가 닭살처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닭에 관한 속담도 매우 많다. 여자들이 자기주 장을 고집하면 암 닭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였으며 소경계닭 잡아먹기 라는 말도 있고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꼬리는 되지 않다고 한다. 닭 소 보듯 소 닭 보듯 한다. 즉 무관심에서 나오는 말이고 매사 희망이 없을 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촌담 관청에 간 것 같다는 등 그 밖에 암탉, 수 닭, 산닭, 촌닭 등 세분된 속담이나 전설이 많지만 여기에서 절기로 한다.

포천시 여성대학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

양복 및 생활한복 패션쇼 공연 눈길



구립 22일 여성대학에서 개최된 여성대학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에서 관계자들이 작품전시회에 앞서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제14기 포천시 여성대학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가 수강생과 교육강 사, 시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구립 22일 여성회관 청 성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박윤근 포천시장은 수료생들에게 여성대학 수료증 서(생활요리 김영옥 등 627명), 우 수 수료생(한식요리 한복주 등 45 명), 알뜰상(양재 강영미 등 59명) 을, 최대중 포천시의회 의장은 솜 씨상(영어회화 임연숙 등 55명)을 수여했다. 이번 제14기 여성대학은 구립 9월부터 4개월 동안 ▶한식 및 양식 조리사, 미용 등의 자격증 반과 ▶메이크업, 홈패션, 컴퓨터 등의 기술교육반 ▶외국어회화, 교 양한문 등의 교양교육반 ▶수지침, 서예, 생활도자기, 꽃예술 등의 취 미교육반 등 총 44개 과목 56개 반 으로 운영됐다.

이번 수료생들은 모두 627명이며 매주 1~2회씩 교육에 참석했다. 이 날 수료식에 이어 양재반과 생활한

복반 수강생들이 구립 4개월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선보이는 '양복 및 생활한복 패션쇼'와 영어회화반 의 회화 및 영어합창이 열려, 참석 자들의 많은 관심속에 진행됐다.

또 수강생 작품전시회에는 요리, 제과제빵, 홈패션, 생활한복, 생활 도자기, 리본아트 등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230여 점의 작품이 전시 돼 눈길을 끌었다. 스포츠댄스와 요리교좌를 수강한 강안순(55· 군내면)씨는 "가정에서 소일만 하다 여성대학에 다니면서 활동을 하니 생활에 활력소가 됐 다"며 수료소감을 밝혔다.

또 가족들의 권유로 수강을 결심 했다는 홍영애(55· 이동면)씨는 "바쁜 생활을 쪼개서 열심히 다닌 보람을 느꼈다"며 "수강을 통해 '할수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고 말했다.

제15기 여성대학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협배기자 94spice@hanmail.net

권신원 前 자치행정국장 정년퇴임

36년간의 공직생활 마무리

권신원 포천시 전 자치행정국장 이 28일 포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정년퇴임식을 끝으로 36년 간 정를 엮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1944년 포천에서 태어난 권 전 국장은 69년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 된 후 포천시 주택계장, 예산계장, 행정계장 등을 거쳐 91년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며, 이후 문화 공보실장, 소출음장, 기획감사실장 등을 거쳐 2002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2003년 포천시 승격에 따라 초대 포천시 자치행정국장으로 재 임했다.

또 89년에는 내부부장관 표창을, 99년과 2001년에는 국방부장관 표

창을 받았으며, 2000년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는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권 전 국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공무원 조직이 튼튼하면 모든 국 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된다고 하며, 후배 공무원 들의 더욱 많은 노력을 당부했다.

박윤근 포천시장은 공직을 영예 로운 정년퇴임으로 마무리하는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이제 공 직을 떠나지만 물심양면으로 포천 시 발전에 계속 이바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지협배기자 94spice@hanmail.net

신읍동 우회도로 준공

시내 교통체증이 완화, 어룡동 일대의 도시개발 활기 기대

포천시는 구립 23일 신읍동 우회 도로공사 준공식을 주관과 지역유 관기관 대표, 관계 공무원 등 15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신읍동 우회도로는 연장 1.130m, 폭 20m로 구립 2002년 5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 7월에 착 공해 약 18개월 만인 이날 준공식 을 갖게 됐다. 예산은 도비 30억, 시비 30억 등 총 60억 원이 투입됐 으며 이 가운데 보상비로 29억, 공 사비로 31억 원이 소요됐다.

왕복 4차로인 신읍동 우회도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전체 구간에 걸쳐 인도를 설치했으며, 도로 미관을 위해 가로수와 화초를 함께 심었고, 특히 점차 도시개발 에 대비하기 위해 좌우측 인도 지 하에 오수전용관과 상수도 급수관 로도 매설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포천시 참수면이나 신북면 외북지

역, 그리고 연천 지역에서 43번 국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포천시 내를 경유해야 했지만, 이번 도로 개설로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 할 수 있어 만성적인 시내 교통체 증 완화와 어룡동 일대의 도시개발 도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는 현재 ▲반월교~포천 천주교간 400m ▲호병천~포천 교 간 580m ▲포천시 보건소~가재리간 1.200m ▲한내교~포천대 교 간 제방도로 800m 등 관내 도로 개설을 위해 모두 389억 원을 투 입,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05년부터는 130 억원을 투입, 43번 국도에서 포천 광역고속터미널을 직접 연결하는 1.750m 길이의 우회도로를 건설할 계획이어서 시 도로여건이 한층 개 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협배기자 94spice@hanmail.net



구립 23일 신읍동 우회도로공사 준공식에서 주관과 지역유관기관 대표, 관계공무원들이 준공 기념 테이프컷팅을 하고 있다.



권신원 포천시 전 자치행정국장이 28일 포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정년퇴임식을 끝으로 36년 간 정를 엮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인터뷰 포천문인협회 신임회장이에게
“농사를 짓는 듯 정성을 다해 협회를 꾸려가겠다”



"뿌리고 가꾼 만큼 수확한다" 이재욱 포천문인협회 신임회장의 말이다. 본인을 농사꾼이라고 소개한다. 농사꾼의 아내가 아니라 직 접 씨를 뿌리고 가꾸는 누가 뭐 래도 농사꾼이라고 말한다. 문인협회의 활동 역시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노력하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문학의 불모지에 6년전 씨앗 을 심어 지금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속에서 고수해 주신 일관영 전 포천문인협회 회장님께 감사 드 린다"고 말한다.

지금의 그때보다 상황은 나아 졌지만, 아직은 유언기를 지나 아들에게 접어드는 단계라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 은 회원들이 채워줄 것이라는 믿 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회원들의 노력과 성원, 원로들의 격려가 포천문인협회가 순항

해 가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 한다.

그리고 자신 을 추대해 준 회원들의 기대에 어긋 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 지고 협회를 이끌어 나가 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신임회장은 포천시 문인협 회에 대해 대부분의 문화예술 단 체가 그렇듯이 각자의 개성이 너 무 커 회원들간의 응집력이 미흡 한 것이 아쉽다고 한다.

이에 지금까지의 포천시 문인 협회 모습에서 탈피, 서로간의 작품발표회를 통해 자주 교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회장은 1948년 5월 5일 포천시 가산면 출생하여, 구립 1984년에 선단지 부녀회장을 시 작으로 새마을어머니회, 여성의 용소방대장,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 포천시지부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했다. 그리고 현재 는 포천문화원 이사, 포천유도회 감사, 불교 연합합창단의 지휘자 로써 활동하고 있다.

문인으로서의 활동은 구립 1998년 2월 '해동문학'을 통해 단단한 후, 2001년도에 한국문인 협회 포천지부 1대, 2대 수석부 회장을 역임했다. 백성주기자 paek1031@nate.com

본지 최호열 발행인 포천시로부터 감사패



포천시는 구립 28일 포천신문 최호열 발행인에게 포천시청 시장실에서 감사패를 수여했다.

포천시(시장 박윤근)는 구립 28 일 오후3시에 포천신문 최호열 발 행인에게 포천시청 시장실에서 감 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본지의 최호 열 발행인이 평소 시장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준 점을 인정해 포천

시가 수여한 감사패이다. 포천시는 포천신문을 4년전에 재 창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 역언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 우리 지역에서 가장 권위있는 지역정론 열발행인이 평소 시장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준 점을 인정해 포천

시가 수여한 감사패이다. 포천시는 포천신문을 4년전에 재 창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 역언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 우리 지역에서 가장 권위있는 지역정론 열발행인이 평소 시장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준 점을 인정해 포천

“이국땅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외국인노동자 송년행사 즐거운 시간 보내



성공회포천나눔의집은 지난 28일 포천중정중앙홀에서 외 국인 노동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 이주노동자 송년위원장'을 열었다.

이국땅에서 생활하는 어려움 속 에서도 뜻깊고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복지단체의 노력으 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성공회포천나눔의집(관장 오상 운)은 구립 26일 '유정웨딩홀'에서 박윤근 포천시장을 비롯한 시관계 자와 외국인 노동자 15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2004 이주노동자 송년위원장'을 열었다.

포천시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 사에는 춘천한국문화연구회 '사 물놀이'와 참여연대노래대 '잡종

다'의 노래공연 등 다채로 운 공연이 펼쳐졌으며, 외 국인 노동자들은 장기자랑 을 통해 숨은 장기를 유감 없이 보이는 등 즐거운 시 간을 보냈다.

박윤근 포천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이주노동 자들이 포천경제에 차지하 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말 하면서 "여러분도 포천시 민의 한사람인 만큼 시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노력 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 고 밝히고 격려했다.

올해 5월에 실시한 '이주 노동자 체육대회'와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성공회포천나눔의 집'은 구립 2002년 4월 설립되어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가정 결연을 통해 말뚝이, 청소, 이발, 목욕봉사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에 대해 도움을 주는 외국인 노동자센터와 자활수 령기관, 푸드뱅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1031@nate.com

‘사랑과 온정’으로 선도할 터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발대식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부 (지부장 이주석)는 구립 23일 포 천 동정회관에서 '어머니 포순 이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어머니 포순 이 봉사단(단장 이계순)과 박 윤근 포천시시장, 최대중 포천시 의회의장, 김영목 포천경찰서 장 등 내빈 및 관계자 1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됐다.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은 ▶ 범포예명성도 ▶학교폭력 추방 및 양파 애가기 ▶외로운 이웃 을 보듬어 더불어 사는 사회기 풍 진작 ▶민주의식 함양을 위 해 출범했다.

이계순 단장은 기념사에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찰에 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봉사단 을 결성했다"며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랑과 온 정'으로 범포예명과 청소년 선 도를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석 지부장은 치사 에서 "학교폭력 추방과 청소년 범포예명을 위해 포순이 봉사 단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고 믿는다"며 "어머니들의 손 길에 더욱 역량을 발휘해 범포예 명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 혔다. 또 김영목 포천경찰서장 은 축하사에서 "취약점이 많은 포 천의 범포예명을 위해 앞장선 봉사단에 감사하다"며 "처음 의 각오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은 이날 ▶단장 이계순 ▶부단 장 홍인숙 ▶총무부장 윤영순 ▶영의부장 유진숙 ▶운영팀장 왕달순씨 등 35명의 단원이 위 축됐다. 지협배기자 94spice@hanmail.net